

## 〈계축일기〉에 나타난 선악관 고찰

김정경\*

〈차 례〉

- I. 사실/허구에서 서사로
- II. 유교/무속의 대립과 무질서로서의 악
- III. 서궁/대전의 대립과 본성으로서의 악
- IV. 고정적 인물/유동적 인물의 대립과 행위로서의 악
- V. 인조반정을 이해하는 세가지 시각

### 〈국문초록〉

〈계축일기(癸丑日記)〉는 ‘인조반정’을 둘러싼 여러 인물과 사건을 기술한 텍스트로서, 인목대비 또는 인목대비를 모시던 내인의 관점에서 광해군을 비판적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계축일기〉에는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대립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대립·갈등 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선악의 대립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대립의 양상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품 속에서 인조반정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 사건을 선악의 대립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계축일기〉에는 선악을 규정하는 상이한 시각이 담겨있음을 알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광해군의 등극이나 인조반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제어** 계축일기, 인조반정, 정체성, 선악관, 유교, 무속, 성선설, 성악설

\*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 1. 사실/허구에서 서사로

<계축일기(癸丑日記)><sup>1)</sup>는 선조35년(1602) 인목왕후가 정명공주를 임신했던 때부터 광해군15년(1623) 인조반정 때까지 궁중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작자 미상의 기록이다. 상·하권 한 책의 한글 필사본으로 낙선재(樂善齋)에 전해오다가, 한국전쟁 때 원본은 소실되었고 지금은 전쟁 이전에 출간된 영인본<sup>2)</sup>이 남아있다.

<계축일기>에 대한 연구는 강한영에 의해 교주본<sup>3)</sup>이 출간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지금까지 대체로 작가문제와 장르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sup>4)</sup> <계축일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용숙은 이전까지 별 이견없이 받아들여졌던 인목대비의 내인들이 지었다는 내인설(內人說)을 부인하고 인목대비가 직접 서술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민영대는 작자가 인목대비의 내인들임을 주장하면서 작품의 저작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소설사에서 비교적 초기에 위치한 소설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sup>5)</sup> 이외에도 여러 논자들이 <계축일기>의 작가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결론은 없다.<sup>6)</sup>

1) 본고에서는 <계축일기>(조재현 옮김, 서해문집, 2003)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필요에 따라 강한영 교주 <癸丑日記>(新古典社, 1958)를 참고했다.

2) 민병도 편, 『조선역대여류문집』, 을유문화사, 1950.

3) 강한영 교주, <癸丑日記>, 新古典社, 1958.

4) <계축일기>에 대한 연구서는 민영대(『계축일기』, 『고전소설연구』, 황폐강교수 정년 퇴임기념논총, 일지사)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5) 위의 책, pp.819~820.

6) 인목대비·정명공주설은 박연호(계축일기와 당시 한문일기들의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홍기원(홍기원 역주 <서궁일기>, 민속원 1986), 김일근(계축일기신고, 『국어국문학 55·57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2) 등이 주장하며, 내인설은 김신연(서궁일기연구, 숙대 석사논문, 1985), 정은임(『궁정문학연구』, 솔터, 1993), 민영대(『계축일기연구』, 한남대출판부, 1990), 이우경(『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등

장르에 관한 논의 역시 뚜렷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허구적·서사적 성격이 강한가 또는 사실기록적 성격이 강한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소설 또는 수필(교술)로 분류되었다.<sup>7)</sup>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민영대와 정은임의 것을 들 수 있다. 민영대는 이 작품이 “처음부터 선과 악의 대립을 표면화시켜 궁중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권력다툼의 비극적인 모습을 인목대비 편에서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필치로 그려낸 것”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소설화”했으며 “고소설의 전형적인 주제인 권선징악”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sup>8)</sup> 반면에 정은임은 민영대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친다. ① 예술은 인생을 조명하는 시대적 산물이므로 유교사회에서 권선징악의 주제는 소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② 사건 기술에서의 허구성과 작품에 삽입된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은 소설 이외의 다른 문학 양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③ 고소설이 주인공의 일대기를 평면적으로 기술하는데 반해 <계축일기>는 주인공 인목대비의 일대기적

---

이 주장한다. 작가문제는 “내인들이 잠깐 기록한다”라는 작품의 내적 기록을 그대로 믿었던 데에서 출발하여, 이제 작품 분석을 통해 이를 규명하려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역시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정병실, 『癸丑日記의 작가문제와 역사소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15집, pp.152~154 참조.

7) <계축일기>의 장르에 관한 논의는 문학개론이나 문학사 또는 소설론이나 수필론 등에서 간단하게 언급되는 정도였다. 이병기, 이승녕, 김기동 등은 ‘소설적 표현법’을 쓰고 있음을 근거로 이를 소설로 보았으며, 조운제, 김동욱 등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체험의 기록’이라 하여 이를 소설로 보지 않았다. 정은임, 『조선조 궁중문학의 장르 재조명』, 『동양학』 제3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2, pp.2~4.

8) 민영대, 『계축일기』, p.817. 정은임은 이를 다음의 세가지로 항목화하여 정리했다. ① 작품의 중심 인물인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묘사에 있어서 사실과 전혀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② 작품 속의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 것은 작가의 허구화에 의해 재구성하였기 때문이다. ③ 구성에서 도입부에 비극의 씨앗인 영창대군의 탄생, 전개부에서 갑작스런 선조의 승하와 광해군의 즉위로 인해 연이어 일어나는 비극적 사건, 종결부에서 인조반정과 인목대비복위 등이 훌륭한 소설적 구성을 갖추었다. 정은임, 위의 논문, p.5.

인 내용은 생략된 채, 작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로 채워져있다.<sup>9)</sup> 즉 정은임은 이 작품을 소설이 아닌 수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은임의 이러한 논의 역시 정병설<sup>10)</sup>에 의해 다시 반박되었다. 이처럼 <계축일기>의 장르에 대한 논의 또한 작가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진행중<sup>11)</sup>이다.

<계축일기>의 작가와 장르 문제에 관한 여러 논의들 가운데 작품의 역사소설적 성격을 밝힌 정병설의 논의<sup>12)</sup>와, 서술자의 측면에서 표현 전략을 살펴본 이영호의 논의<sup>13)</sup>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병설은 <계축일기>가 기본적으로 사실(史實)기록적 성격이 없지 않지만, 체계적·구성적 면모, 허구성, 서사 전개 등에 있어서 소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 소설, 즉 범박한 의미에서 역사소설이라고 주장한다.<sup>14)</sup> 특히 그는 <완월회맹연>을 예로 들어 비교함으로써 작품의 결미에 있는 창작경위에 대한 진술이 ‘작품전개기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쌍천기봉><명주보월빙><유효공선행록><옥원재합기연><소현성록>등 다른 규방소설 혹은 장편대하소설에서도 작품의 등장인물이 작품을 창작했다는 진술을 작품 결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축일기>의 “내인들이 잠깐 기록한다”<sup>15)</sup>

9) 정은임, 위의 논문, pp.5~6.

10) 정병설, 앞의 논문.

11) 이 외에도 작품의 문체(이병원, 「계축일기의 문체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96권, 국어국문학회, 1986』 또는 궁중 풍속(이순구, 「『계축일기』에 나타난 궁중생활상」, 『한국사학회』, 1998) 등과 관련한 논의들이 간헐적으로 전개되었다.

12) 정병설, 앞의 논문.

13) 이영호, 「서술자의 측면에서 본 <계축일기>의 표현 전략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2.

14) 정병설, 앞의 논문, p.158.

15) 조재현 옮김, <계축일기>, 서해문집, 2003, p.179.

에서 ‘내인’이란 소설 내에 허구적으로 설정한 ‘가상작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sup>16)</sup> 이를 토대로 <계축일기>는 서궁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 기록과 소문을 토대로 재구성한 역사소설이며, 창작 시기는 18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17·18세기 조선의 소설계에는 중국의 역사를 허구적으로 서사화·소설화하는 경향이 서서히 생겨났으며, 그런 경향의 대표적인 산물이 <계축일기>와 <인현왕후전>이라고 작품의 소설사적 위상을 밝혔다.<sup>17)</sup>

이영호는 <계축일기>의 작가와 장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서술자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서술자의 역할에 따라 <계축일기>의 내용을 구분하고 각각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서술자의 표현 전략을 분석한다. 그는 <계축일기>를 ‘광해군 측의 비윤리성’ ‘인목대비의 수난’ ‘내인들이 받은 핍박’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다시 69개의 서사단락으로 나누어 꼼꼼히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계축일기>의 서술자들은 ‘풍문의 매개자’이자 ‘사건의 목격자’이며, ‘체험의 기록자’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풍문의 매개자로서 서술자는 자신들에게 핍박을 가한 광해군 측 인물들의 부도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들을 수집하여 이를 믿을 만한 사실의 형태로 제시하고 규범적 측면에 입각하여 논평을 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사건의 목격자로서의 서술자는 계축옥사나 영창대군의 출궁과 같이 대비에게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고 극적 제시를 통해 이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독자들의 동정과 공감을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내인들이 받은 핍박을 다룬 부분에서 서술자는 내인들의 집단적 체험에 대한 보고자이자 행위주체의 일원으로서 복합적인 면모를 갖는다. 요컨대 이영호는 서술자의 역할

16) 정병설, 앞의 논문, pp.159~161.

17) 위의 논문, pp.164~165.

과 그에 따르는 표현 전략과의 상관성을 밝혔다.<sup>18)</sup>

비교적 자세하게 검토한 위의 두 논의에 주목하는 까닭은 이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계축일기>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 작품을 대개 긍정문학이라는 테두리 안에 두고, <인현왕후전>, <한중록>등과 비교 검토해왔다면, 위에서 검토한 정병설의 논의는 여기에서 벗어나 동시대의 다른 서사물들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작가 규명에 관한 연구와 맞물려 작품에 서술된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논의가 모아졌다면, 이영호의 논의는 작가의 의도와는 별도로 서술자의 양상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표현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작품 서술상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드러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사실/허구라는 틀을 전제로 하여 <계축일기>와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에 치중했다. 반면에 이들 논의는 사실/허구의 대립을 서사라는 범주에 포괄함으로써 현실의 구성 또는 의미화의 방식에 초점을 둔다. 현실이 어떻게 재현 또는 왜곡되었는가에 서 현실을 어떻게 의미화하는가로 주의를 돌렸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계축일기>가 세계를 의미화하는 방식, 다시 말해 역사적 사실 혹은 경험에 의미있는 형상을 부여하는 방식<sup>19)</sup>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논의는 텍스트가 역사적 사건을 선악의 대립구도로 바라보

18) 이영호, 앞의 논문, pp.65~66.

19) <계축일기>에서 세계를 의미화하는 방식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는 이 텍스트에 기록된 내용이 당대의 집단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세부 사실의 선택이나 묘사 등에 나타나는 주관적인 성격은 그가 속한 집단 내지는 시대의 인식체계와 별개일 수 없다. 따라서 <계축일기>의 의미화작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생산된 계층과 시대의 인식상의 특징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단턴, 『고양이 대학살』, 조한욱 역, 문학과 지성사, 1996, p.116, p.146 참조.

는 양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선조는 조선왕조사상 처음으로 방계 서손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위 계승의 문제에 누구보다 민감했다. 첫 번째 중전인 의인왕후에게 자식이 없어서, 나이가 40이 넘을 때까지 세자책봉을 미뤘은 것만으로도 이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궁 공빈 김씨의 차남으로 태어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임진왜란 때문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만일의 경우에 중국 요동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우고, 전란과 관계된 모든 사항들을 광해군에게 일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는 새롭게 인목왕후를 중전으로 맞아 영창대군을 낳고, 이때부터 조정에서는 '적통론'을 내세우는 소북파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난다. 1608년 갑작스런 선조의 죽음으로 광해군이 왕위를 잇기는 하지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은 채 수많은 옥사를 낳고 결국 광해군은 폐위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원년인 1609년 4월에는 형 임해군을, 그리고 1614년에는 동생 영창대군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또한 1618년에는 인목대비까지 서궁에 유폐시켜 패륜아로 지탄받는다. 하지만 이같은 패륜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비난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있던 15년 동안 그가 임진왜란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또한 실리를 앞세운 외교정책은 광해군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광해군을 둘러싼 당대의 그리고 후대의 평가가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기록들이 누구의 입장에서 쓰였는가라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광해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동일한 사건

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이 사실에 보다 충실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계축일기>에도 적용되는 문제로서, 우리는 광해군을 둘러싼 여러 사건과 일화들을 기록한 이 텍스트가 전적으로 사실 또는 허구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텍스트에 서술된 사건들의 진위여부를 논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여러 사건들이 <계축일기>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혼란스러운 당대의 상황이 의미화 되는 방식을 논해보려 한다. 요컨대 <계축일기>를 향유한 집단<sup>20)</sup> 즉 그것을 생산하고 소비한 집단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계축일기>는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sup>21)</sup> 다시 말해서 “작자는 펄박을 가하는 광해군과 수난을 당하는 인목대비를 선악의 대립으로 설정하고, 철저하게 인목대비 측을 긍정하는 시각에서 작품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2)</sup> 그러나 <계축일기>에는 광해군과 인목대비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은 채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을 광해군 측과 인목대비 측으로만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과 악의 대립 양상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선으로 그리고 무엇을 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가지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20) 창작연대조차 불명확한 <계축일기>의 향유집단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조선 후기 한글 산문의 생산자와 소비자 혹은 <계축일기>의 생산자로 지목되는 17(~18)세기의 내인들 혹은 인목대비와 정명공주를 향유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본고에서 향유집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특정한 시대와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 작품의 향유집단은 지금까지의 논의는 물론이고 본고와 앞으로 계속될 연구를 토대로 계속해서 추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향유집단이란 세계를 의미화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필자의 논의가 궁극적으로 목표화하는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21) 민영대, 『고전소설연구-황폐강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일지사, 1993, p.817.

22) 이영호, 앞의 논문, p.42.

입장에서, 작품 속에 드러난 선과 악에 대한 당대 인식의 일면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계축일기>의 서술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계축일기>는 시간의 순서가 작품 속에서 거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텍스트이다. <계축일기>의 서술자는 무엇 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사건과 일화를 선택하여 기술한다. 가령 광해군의 악행을 부각시키려는 부분에서는 광해군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화들을 선택하고, 인목대비의 가련한 처지를 부각시키려는 부분에서는 대비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나 사건들을 선택<sup>23)</sup>하는 식이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되지 않는다.<sup>24)</sup> 그러므로 우리는 텍스트상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이나 일화들을 어디까지나 텍스트에 서술된 순서 혹은 위치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순서보다는 그것이 서술된 순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II. 유교/무속의 대립과 무질서로서의 악

본고에서는 이 작품이 ‘선조의 죽음’<sup>25)</sup>과 ‘계축옥사’를 기준으로 크게 세

23) 계축년부터 대비전 내인들이 겪은 서러운 일이며, 왕이 날마다 내관을 보내어 위협하고 꾸짖던 일이며, 어른을 천대하고 도를 행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던 일들을 이루 다 기록하지 못하여 겨우 만분의 일이나마 기록할 뿐이다. 『계축일기』, p.179. 이영호, 앞의 논문, p.44 참조.

24) 앞부분에 서술된 이야기들만 정리해보면, 1602→1603→1606→1604→1607→1608→1607→1592→1600→1606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사건들을 배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민영대, 『계축일기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1990, p.124 참조.

25) 이때 선조의 죽음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하여 선조가 죽은 해인 1608년 이전에 벌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선조의 죽음’ 이전에 작품 속에 드러나는 갈등의 양상과 ‘계축옥사’를 전후로 하여 작품에서 구현되는 갈등의 양상이 뚜렷이 변별되며, 이들 사건을 기준으로 선악에 대한 인식상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이렇게 구분한 세 부분을 차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텐데, 본 장에서는 이 가운데 ‘선조의 죽음’ 이전 부분을 다루겠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조의 죽음’을 내용 구분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까닭은 이를 기준으로 인식상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선조의 죽음’ 이전 부분은 전체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서사가 진행되기 이전의 어떠한 상황, 즉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안정된 혹은 최초의 질서를 보여주는 부분이므로 충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몇몇 논의들<sup>26)</sup>을 참고로 하여 <계축일기>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그 가운데 ‘선조의 죽음’ 이전까지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7)</sup>

#### 1. 유자신이 중전을 놀라게 하여 낙태시키려고, 궁궐 밖에 화적 떼가 나타났

어진 일들과 이후의 일들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선조의 죽음’이 서술된 이후에도 작품 속에서는 그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나 일화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조의 죽음 이전이란 선조의 죽음이 처음으로 텍스트에 제시되기 이전에 서술된 일들을 선조의 죽음 이후는 그 이후에 서술된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26) 민영대, 앞의 책, 이영호, 앞의 논문.

27) <계축일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플롯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텍스트이다. 때문에 서사단락을 정리하는데 시간의 순서가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1602년에서 1623년까지 벌어진 일들을 서술했다고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라고 보기 힘들다. 선조가 죽은 뒤의 일들을 서술하는 가운데 갑자기 선조가 살아있을 때로 되돌아가는 일도 비밀비재하며, 영창대군이 죽은 것을 서술한 뒤에 갑자기 영창대군이 살아있을 때의 일을 서술하기도 한다.

- 다는 소문을 퍼뜨렸다.(1602)
2. 인목왕후가 공주를 낳고, 유자신이 축하예물을 올렸다.(1603)
  3. 중전이 대군을 낳았다.(1606)
  4. 유자신이 동궁을 모시는 무리들과 정인홍에게 동궁의 안위를 위하여 곳도 하고 점도 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5.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음해하는 소문을 퍼트리기 위해 동요까지 지어 유행시켰다.
  6. 대국의 천자에게 세자책봉을 주청드리자고 선조를 재촉했다.
  7. 갑진년에 대국의 천자가 둘째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일은 예법에 어긋난다 하여 동궁의 세자책봉을 허락하지 않았다.(1604)
  8. 정인홍 등이 임해군을 위한다며 유영경을 죽이라는 상소를 올리자 선조가 귀양보내라는 교지를 내린다.(1607)
  9. 선조가 죽다.(1608)

‘선조의 죽음’ 이전까지는 계비 인목왕후가 대군을 낳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주로 나타난다. 유자신과 동궁을 모시는 무리들은 인목왕후와 영창대군, 그리고 임해군을 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궁리하고 결국 임금으로부터 귀양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반면 선조는 ‘둘째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일’이 ‘예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깨닫고 더이상 대국에 이 일을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으로 자신에게 대항하는 신하들을 귀양보낸다. 요컨대 <계축일기>에 가장 먼저 제시되는 대립 관계는 선조 대 유자신의 대립이며, ‘선조의 죽음’ 이전에 작품 속에서는 이들 간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다.

유자신의 무리가 가장 염려하는 일은 동궁이 폐위되는 것이며, 선조가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신하들이 자신을 재촉하거나, 이리하라 저리하라는 등 조종하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유자신은 곳을 하고 점을 치며, 소문과 동요를 지어 퍼뜨린다. 그리고 선조는 자신을 마음대로 하려

는 신하들을 귀양보내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처럼 선조와 유자신이 대립적인 관계로 기술된 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대립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이 유교와 무속의 대립으로 텍스트 상에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선조의 교지(8)는 임금을 마음대로 하려는 신하들의 행동을 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선조는 유교적인 위계 질서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도전하는 신하들을 벌하려 했다. 반면에 유자신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일들을 꾸며내어 소문을 퍼트리고(1,5) 곳을 하고 점을 치라고 지시한다(4). 무속을 수단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서술자는 이러한 대립 가운데 선조의 질서 즉 유교적인 질서를 긍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유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무속을 부정적인 것으로 그린다. 요컨대 선조의 죽음 이전 부분에서는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가 아니면 거역하는가라는 문제가 유교와 무속의 대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에 유교와 무속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었나 하는 점을 참고로 하여 이 문제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사실 유교적인 것을 선으로 그리고 무속적인 것을 악으로 보는 이러한 비대칭적인 대립 관계는 조선시대 유교와 무속이 차지한 사회적인 위상과 관련시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면 무속은 그렇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공식종교는 유교뿐이었으며, 무속은 대표적인 체제 외적 종교였던 것이다.<sup>28)</sup>

조선조의 공식종교인 유교는 공식적인 위상을 지니지 못하는 민속 종교 전통을 음사론을 통해 통제해 나갔다. 음사론은 正邪의 구별의식에서 비롯

28) 최종성, 『조선시대 유교와 무속의 관계 연구』, 『샤머니즘 연구』 제4집, p.229.

된 것으로서 공식종교의 제도적 힘의 논리로 구사되었다. 공식종교의 의례 편제에 해당되는 것은 바른 제사로 간주된 반면, 공식적인 祀典에 속하지 않는 민속종교의 의례는 바르지 못한 제사로 규정되었다. 이른바 정사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공식종교는 正道를 실현하는 우월하고 정상적인 종교인데 반해, 민속종교는 正道에서 벗어난 주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교라는 점이 부각되었다.<sup>29)</sup>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무교의 관계를 정(正)과 사(邪)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교로의 일원화 과정이 도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유교가 내세운 음사비판의 핵심은 바로 사대부와 왕도를 무속의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었다. 왕의 궁궐이 자리잡고 있는 도성은 유교의 왕도정치가 실현되는 출발지로서 순수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음사로 간주되는 무속문화로부터 왕도를 보호함으로써 순수한 공식종교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교의 기본 과제였다.<sup>30)</sup> 다시 말해서 조선사회가 기획한 것은 나라 전체에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와 무속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일이었다. 조선 사회가 안정된 상태라고 보는 것은 유교적인 세계, 그리하여 무속적인 것이 완전히 제거된 공간이 아니라, 유교적인 것과 무속적인 것이 엄격하게 구분된 세계이다. 왕도와 그 밖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선사회가 지향하는 바였다.<sup>31)</sup>

29) 위의 논문, p.230.

30) 위의 논문, pp.246~247.

31) 조선시대에 무속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무속을 도성 밖으로 배척하는 것이 문제시되었음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조 이래로 유가의 류가 이단을 공격하고 좌도를 배척하는 것을 일삼아서 무격을 쫓아내어 성중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며, 승니들이 연화에 발길을 접하지 못하게 할 것을 건의하며, 또 좌도와 이단이 백성의 해가 되므로 배척해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실제로 현실에서 이것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축일기>에서 ‘선조의 죽음’ 이전에 그리는 세계는 이러한 질서를 표상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궁궐 안의 질서는 위에서 말한 유교적 질서 곧 문명이며 궁궐 밖의 질서는 무속적 질서 즉 비정통적이며 비공식적인 그리하여 문명 이전의 상태라고 정리될 수 있다.

### Ⅲ. 서궁/대전외의 대립과 본성으로서의 악

앞서도 언급했듯이 ‘선조의 죽음’은 <계축일기>에서 선과 악의 대립양상이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선조의 죽음’ 이전에 텍스트 안에서 선과 악은 유교와 무속, 즉 정(正)과 사(邪)로 의미화되었다면, 이제 선과 악은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제시된다.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대립이 중심에 놓이면서 선과 악의 새로운 대립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대립은 곧 서궁과 대전외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서궁과 대전외는 각각 인목대비와 광해군을 지칭하는 호칭인 동시에 그들이 기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서궁은 1618년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후궁의 자리로 끌어내려 유폐시킨 곳으로서, 이곳은 작품 속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선한 공간으로 제시된다고 해도 이 공간을 지배하는 질서는 이전의 선조로 대표되었던 질서, 즉 유교적인 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서궁과 대립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대전외와 관련시켜 보았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경성 문 밖의 땅은 왕의 영토가 아니며, 경성 문 밖의 사람은 다만 왕의 신하가 아닌가? …… 이조의 정령이 성 밖에는 나가지 않았음이 다만 중과 무당을 좇아낸 일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정령도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이능화, 『조선무속고』, 이재곤 역, 동문선, 1991, p.124.

선조의 죽음 이후에 대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크게 광해군의 불효(25, 26, 27, 28, 33, 34, 44, 50), 무능함(35, 37, 38, 39), 그리고 식성과 포악함에 대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전의 ‘악’이 미개함, 무질서, 문명 이전의 세계를 의미했다면, 선조 죽음 이후에 대전이 표상하는 악은 자연관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sup>32)</sup> 먼저 서궁에 대한 묘사를 살펴본 뒤에 이에 대해 논해 보겠다.

다음의 내용은 ‘서궁’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것이다.

#### 분리·죽음을 의미하는 부분

70. 처소 안팎을 에워싸고 문이란 문은 다 밀어 닫고 사잇문까지 탕탕 막아 버렸다.
71. 대비전의 바깥 행랑에는 큰 대문이 있는데, 본래 드나드는 문이 아니어서 늘 닫아 놓았다. 내인들은 그리로 소식을 전하려 하였으나 군사들이 지키고 섰는지라, 관아의 하인 따위가 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전할 길이 없어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72. 대비마마는 웃어른의 처소에 계시지 못하고 후궁이나 정빈이나 마찬가지로 뒤섞여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76. 당시 대비전과 대전이 거처하는 두 대궐에는 사잇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잠가 두고 아침에 내관이 문을 열어야 조석 문안을 드리는 상궁이 다닐 수 있었다.
96. 서궁의 담을 더 높이 쌓고 궁중을 좁게 했으며 문에는 첩을 박았다.
97. 대전에서 더러운 물건을 한 곳에 모아두라고 하여 일년 동안 모아 놓은 것이 산과 같았다.

---

32) “집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기호로 쓰이게 될 때, 그것 역시 언어 기호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체계의 차이 속에 있는 실존체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어령, 앞의 책, p.295.

- 98. 두어 해가 지나자 약취가 궁중에 가득하고, 구더기가 방안과 밥 지어 먹는 솔 위에까지 끼어, 물로 씻어내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 99. 집 위에 까마귀와 까치의 똥이 가득하여 마치 회를 바른 듯했다.
- 100. 그렇게 십년이 지나자 모든 물건이 다 없었다. 신바닥을 기울 노끈이 없어 배움을 풀어 꼬아 집고, 지을 실이 없어 모시옷과 무명옷을 풀어 썼다.

**재생을 의미하는 부분**

- 101. 짐승의 똥에 마침 쪽 씨가 들어있었던지 풀 한 포기 생겨났다.
- 102. 쌀을 일 바가지가 없었는데, 하루는 까마귀가 박씨를 물어 와서, 한 해 길러 두 해가 되자 쪽박이 열리더니, 세 해째는 중박이 되고, 네 해째는 큰 박이 되었다.
- 103. 숨도 없이 칠괄 년동안 겨울을 지냈는데, 우연히 면화씨가 섞여 들어왔다.
- 104. 가지와 외와 동화 씨가 짐승의 똥에 들어 있었다. 그것을 심어 나물 상을 차려먹을 수가 있었다.
- 105. 어느 날은 꿩의 목에 수수씨가 들어 있었다.
- 106. 상추씨가 짐승의 똥에 있어서 심었다.
- 109. 하루는 씨 뿌린 적 없는 나물이 침실 뜰에 가지가지 났다. 꿈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물을 못 얻어먹기에 이 나물을 주노라” 하였다.
- 110. 문이 닫혀있는 동안 햇과일이 없었는데, 대비마마께서 친정아버지를 위해 제사를 지내시자, 무오년(1618)부터 이 대추나무가 무성해지더니 큰 밤만한 열매가 열렸다.
- 111. 복숭아나무 또한 저절로 길가에서 자라났다.

선조의 죽음 이후에 서궁은 이전의 궁궐 안과는 성격이 판이하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 질서와는 거리가 먼 공간이기 때문이다. 앞서 궁궐 안은 유교적 질서가 지배적인 공간으로서 문화적이며 인위적이라는 특징을 가

졌다. 그러나 이제 서궁 ‘안’은 문화적 또는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자연적인 공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이제 대전과 서궁은 무엇보다도 자연적인 특질을 갖는 공간으로 묘사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때 각각의 공간이 표상하는 자연의 성격은 매우 상반된다. 서궁은 마치 인목대비가 폐위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식물과 유사하게 그려진다. 시들어가는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허물어가는 집이 다시 모양새를 되찾는 것은 마치 겨울이 되어 사라진 것 같았던 식물들이 봄에 다시 자라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를 가진 것 같다. 이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땅으로부터 생겨나고, 사라졌다가 다시 자란다. 서궁마저도 식물처럼 다 버려진 공간에서 다시 생명을 획득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반면 대전의 자연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32. 광해군은 하루도 채식만은 못할 정도로 육식을 즐겼다.
40. 왕의 성품이 좀 잔인한 데가 있었는데, 부쩍 기등으로 사람을 때리고 채찍을 휘두르고, 달군 석쇠로 내리치는 등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 많았다.
43. 광해군의 미움함은 소와 같아 뒷간에 오래 있거나 자주 들락거렸다.
46. 왕은 영창대군이 보위를 노린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날고기를 먹었다. 이처럼 날것을 즐기자 왕의 눈은 충혈된 것처럼 별절게 되었다.
47. 왕은 야채를 더럽게 여기고 육식만 일삼았다.
48. 왕은 점점 흉폭스러워졌고, 실없는 말까지 했다.

광해군은 육식을 좋아하는데다 날것을 즐겨 먹어 언제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 또한 그의 성품은 마치 짐승처럼 포악하기가 이틀데 없다. 대전과 광해군은 동물적으로 묘사되며, 이때 동물적인 것은 매우 부정적

인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우리는 서궁과 대전의 대립을 통해 자연을 대하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발견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자연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순환하며 재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자연을 폭력적이며 야생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전에 궁궐 안과 밖이 즉 선과 악이 문명과 야만을 대립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선조의 죽음 이후에 서궁과 대전, 즉 선과 악은 조화와 순환 대 폭력과 무질서로 의미화 된다. 대전은 자연적인 것이 동물적인 것과 동일시되는 공간이며, 서궁은 자연적인 것이 식물적인 것과 동일시되는 공간으로서 전자는 악의 공간으로 후자는 선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정리하자면, 이전의 안정된 상황은 광해군에 의해 파괴되고, 안정된 상황을 무너뜨린 광해군은 악으로, 내적공간으로 인식되는 서궁은 선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때 선과 악은 상이한 자연관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선조의 죽음' 이후에 텍스트에서 제시되는 선 또는 악을 인물의 본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자연이란 본래 주어진 것이기에 대전과 서궁을 자연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의 특징을 본래적인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전을 동물로 서궁을 식물로 이해하는 것은 각각의 공간과 그것의 주인의 본성을 동물적인 것과 식물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동물적인 것을 악으로 식물적인 것을 선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전을 본래적인 악으로 서궁을 본래적인 선으로 이해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동물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대전과 식물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서궁의 대립은 성악설과 성선설 사이의 대립<sup>33)</sup>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띠다고 할 수

33)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적으로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라는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상은 우리의 인성에 관한

있겠다.

#### IV. 고정적 인물/유동적 인물의 대립과 행위로서의 악

인목대비의 서궁유폐사건은 조선왕조에서 유일무일하게 어머니의 지위를 박탈한 사건이다. 앞장에서 검토했듯이 <계축일기>의 서술자는 서궁에 유폐된 인목대비를 선한 인물로 그리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킨 광해군을 악한 인물로 그리면서 광해군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선조의 죽음 이후에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선악의 대립양상은 서궁과 대전 즉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다. <계축일기>안에는 대전과 서궁에 대해 자신을 대립항으로 인식하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인물들은 <계축일기>의 가장 유력한 작자로 지목되는 내인들 가운데 일부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내인은 약 30여 명으로 끝까지 인목대비의 곁에 있었던 이들과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유동적인 인물들로 나뉜다. 이들 유동적인 인물들이 '계축옥사' 이후의 부분에서 악인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계축년에 벌어진 내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옥사를 겪고 나서 이제 내인들은 광해군 혹은 인목대비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취한다. 내인들에게 방

---

인식론적 이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성선설은 사람에게서 본질적으로 남의 곤경을 보면 이를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과 남의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움과 미워하는 마음 및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인성의 내면적인 구조가 곧 인의예지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자는 '사람의 성은 악'이라고 주장한다. 순자는 인간의 악을 정성(情性)과 관련시키고 있는데, 정성은 나면서부터 각종의 욕망인 이를 좋아하고 성색을 좋아함이 있어 이에 순하게 되면 쟁탈이 생기고 음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출판부, 1989, pp.66~68.

정사건을 뒤집어씌움으로써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계축옥사 이후에 서궁에 속해있던 내인들은 본격적으로 대전과 서궁을 넘나든다. 이제 그들은 계속되는 여러 누명을 피하고자 혹은 쫓겨 밖 친가와와의 연락을 잇고자 서궁과 대전 사이를 오간다.

이 인물들을 그리는 서술자는 여전히 서궁을 선으로 그리지만, 이제 악은 대전만이 아니다. 서궁과 인목대비는 여전히 선함을 표상하지만 서궁을 배신한 내인들이 악인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또한 악인으로서 광해군의 특징도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계축옥사’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악인인 중환이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중환이는 제 오라비가 인장을 위조한 사실 때문에 여러 해 형추를 당하자 왕을 원망하는 마음이 날로 더해져서 공공연히 욕을 하고는 했다. …그런데 중환이가 이렇듯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히가 알게 되었다. 가히는 당장 중환이를 데려다 감싸고 달래며, 상냥하고 은근히 대하여 정이 들게 한 뒤에 이렇게 언약하였다.

“내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나도 네 오라비를 살려 주마.”

중환이는 가히가 시키는 대로 수라상에 놓는 은바리를 도적질해 가져다 주었다.<sup>34)</sup>

중환이는 제 오라비가 형벌을 당한 것이 대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왕을 원망했지만, 오라비를 풀어주겠다는 가히의 한마디에 모든 원망을 지우고 대비를 배신한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공간에 불박이처럼 존재하며 타고난 선한 본성 혹은 악한 본성에 따라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중환이와 같은 인물들은 어디편에 속해 있기 때문이거나 타고난 본성이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

34) 위의 책, p.99.

익이 무엇인가에 따라 언제든 입장을 바꾸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악인으로 이해된다.

“의인마마께서 살아 계셨을 때도 당시 세자이셨던 상감 마마께서는 효성이 없고 어질지도 못하였지. 일찍이 의인마마께서 하시던 말씀이, ‘…… 하물며 제 친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내 고이 길러 아들로 삼았더니……. 정이 전혀 없으라마는, 본래 사람됨이 효심이 없는 인물이니 능히 알 노릇이지.’ 하시더군요. 그러니 지금 저렇게 모진 짓을 하지. 어쩌면 저리도 사나울까?” 난이는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중환이와 함께 다니며 방자하게 대비전의 물건을 밤낮으로 가져갔다.<sup>35)</sup>

위의 인용문은 대전 내인인 난이에 대한 것이다. 난이는 대비전에 적대적인 동시에 임금에게도 부정적이다. 대부분 서궁의 내인들이 대비를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대전의 내인들 역시 광해군에게 언제나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임금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입장에 있는 중환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전 내인의 편을 들며, 대전 내인 난이 역시 때때로 광해군을 욕하며 다닌다.

74. 중환의 오라비를 가히가 구해주겠다고 유혹하여 중환을 심복으로 삼았다.
75. 중환 등이 대비전 물건을 훔쳐다가 가히에게 주고 대비전의 일을 소상히 알려주었다.(1612)
77. 가히는 이곳을 드나들며 기회를 틈타서 영창대군을 죽이려고도 하고, 방정을 걸기도 했다.
78. 계축년 동짓달 중환이가 인목대비에게 경을 읽도록 권유했으나 거절했다.
79. 중환이 가히에게 인목대비가 대전을 죽으라고 하늘에 제사지내고 계신다는 거짓을 고했다.

35) <계축일기>, pp.126~127.

80. 중환이 문상궁을 속여 일을 꾸몄다.
82. 여옥이가 거짓 자백을 했다.
83. 상궁 난이는 광해군의 부덕함을 욕하고, 대비전에게도 해를 끼쳤다.
91. 천복이가 서궁에 불을 질렀다.
92. 가히 등 대전 내인들이 인목대비를 없애기 위해 서궁의 시녀들을 피어 서궁에 불을 지르는 등 대비를 놀라게 했다. 하인들 중의 여러 아이들과 가히가 내통하였다.
114. 가히, 은덕이, 갑이를 아는 사람들은 밖에 사는 제 부모에게 청만 넣으면 앓지 않는 사람조차 데려갔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계축옥사’ 이후에는 주로 광해군의 과실과 내인들의 억울함 그리고 내인들의 악행이 그려진다(74, 75, 77, 78, 79, 80, 82, 83, 91, 92, 114).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부분에서 가희와 난이 그리고 중환이와 같은 대표적인 악인들이 표상하는 악은 ‘계축옥사’ 이전에 대전이 표상하던 동물적인 악과는 전혀 다르다. 여기에서의 악은 본래 적이라기보다는 인물이 행동한 결과와 동일시된다. 이 공간에서는 선한 행위를 하는 자가 선인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가 악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인물의 본성 혹은 공간의 본질이 아니라 그곳에서 펼쳐지는 인물의 행위이다.

이러한 변화는 광해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수반한다. 서궁과 대전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광해군의 특성을 결정한 것은 그의 타고난 본성이었다. 그의 타고난 자질이 악하다면 그가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본성은 숨길 수 없는 것이 되며, 결국은 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광해군의 악한 본성은 절대 변화를 겪지 않는다.

반면에 내인들이 겪는 수모와 관련된 이야기들에서 광해군의 악함은 그의 본성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광해군이 저지른 결정적

인 과오가 내인들로 하여금 그를 악인으로 여기게 만든다. 광해군이라는 인물의 자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악한 본성에서 그가 내인들에게 저지른 일련의 행동과 선택으로 바뀐다. 내인들과 서궁(그리고 대전)의 대립이 두드러진 부분에서 악은 기질적이거나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것으로 그려지고, 인물은 단지 그의 본래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에 비난 받는다.

행위에 의해 인물의 자질이 결정되는 부분에서 특히 내인들이 중심이 되는 것은 조선시대 그들의 특수한 위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내인은 타고난 신분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남성들의 벼슬처럼 하나의 직업으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다. 조선 효종 때까지도 내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분명한 기준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sup>36)</sup> 내인들은 궁궐에 속한 이들이었지만, 병들거나 죽을 때가 되면 궁궐을 떠나야만 했다. 궁궐을 나온 내인들은 절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궁말이라고 불리던 마을에서 모여 살았다. 이처럼 내인들은 평생동안 완전하게 자신의 집,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한다. 내인들은 실제로 어느 한 공간에 완전히 속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행위에 의해 인물의 자질을 파악하는 데에 타고난 본성으로 완전히 설명하기 힘든 내인이라는 경계적 인물들이 보다 적합했으리라고 판단된다.

## V. 인조반정을 이해하는 세가지 시각

전통적으로 고전소설에서의 작중 인물은 출생에 의해 그 본질적 의미

---

36) 조선전기에는 내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 효종 때에는 양가에서 뽑았다. 그러나 여러 폐단이 생겨 영조는 양가의 딸을 내인으로 뽑지 못하게 했다.

가 결정되었다. 그의 몸 안에 흐르는 ‘피’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순수한 것인가 하는 혈통의 순수성이야말로 한 개인의 특성을 결정하는 근본적 요소였다. 왕의 아들은 비록 목동에 의해 양육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왕이며, 그의 신분이 밝혀질 때 마땅히 왕이 된다. 왜냐하면 그의 몸속에는 이미 왕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sup>37)</sup> 반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될 피를 타고난 인물은 그가 비록 왕위에 오르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광해군은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물의 전형적 의미는 출생 신분에 의해 미리 결정되며 그것은 변화를 겪지 않는다.

<계축일기>에 나타난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대립은 이러한 서사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계축옥사’ 이전까지 그 인물들은 이미 출생에 따른 결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등장인물은 선천적이고 본질적인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본래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다시 말해서 이미 ‘본성’으로 주어진 것이 드러나도록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에 맞는 존재가 된다.

이는 인조반정이라는 사건을 바라보는 인목대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목대비는 왕가에 내재된 일련의 속성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그녀의 그러한 속성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잠재해 있다. 마치 작품 속의 서궁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잠재적 특징이 확인되는 것은 마지막에 서궁이 다시 되살아나듯이 그녀가 비로소 자신의 근본적 특성에 걸맞는 위치를 차지할 때이다. 마찬가지로 본질적 악인으로서의 광해군 역시, 서자라는 자신의 타고난 특성에 걸맞는 위치로 쫓겨남으로써, 자신의 잠재된 본성을, 그의

37) 조나단 켈러, 『문학이론』, p.178.

행동의 토대이자 원인인 그러한 본성을 확인하게 된다. 즉 ‘계축옥사’ 이전 부분은 타고난 본성에 걸맞는 위치를 되찾는 것으로 인조반정을 이해하는 인목대비의 시각을 대변한다.

반면 ‘계축옥사’ 이후에 나타난 악인으로서의 광해군의 면모는 불순한 혈통이 아니라 악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관점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인물의 속성으로 제시될 수 있는 악의나 폭력, 잔인함 등은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일련의 행동과 선택의 결과이다. ‘계축옥사’ 이후에 보이는 광해군의 악인적 면모는 기질적이거나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것이다. 이제 처벌받아야 할 것은 인물의 본래적 특성이 아니라 자제력의 상실이나 비이성적 증오심, 혹은 분별력의 상실 등이다. 따라서 영혼의 상태, 혹은 인물의 내적 상태라 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는 것은 이제 출생에 따른 ‘피’의 순수성이나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행동과 선택의 옳고 그름 여부가 된다. 인물이 본래 어떠한 특성을 지녔든, 그가 자제력을 상실하고 사리판단을 그르치는 순간, 그 인물의 도덕성은 함께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인들 역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혹은 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어느 편에 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의해 선인 혹은 악인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계축일기>는 ‘인조반정’을 둘러싼 모순되는 다양한 시각들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조반정’은 임금의 악행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처벌로 간주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악행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유교적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즉, 작품의 도입부를 지배하는 유교/무속의 대립쌍의 관점에서 볼 때, 광해군의 가장 큰 잘못은 중화사상이라는 유교적 근본 원리를 따르지 않은 데 있다. 실질적 동기가 어디에 있던 명목상으로 ‘인조반정’의 주역들이 내세운 반란의 이유 또한 이것이었다. 앞

서 ‘선조의 죽음’ 이전에서 그리는 안정된 상황은 각자의 위치를 침범하지 않는 엄밀한 구분의 상태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조반정의 주역들에게는 선형적인 유교적 질서가 부여한 임금의 역할이 그리고 명에 대한 조선의 역할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광해군은 그러한 질서에 입각한 임금의 역할에서 벗어난 정책을 취하고자 했다. 곧 그는 조선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이념을 거스르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하였기 때문에, 임금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반면 인목대비의 관점에서 볼 때 광해군은 이미 태생적으로 임금의 지위에 올라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적자가 아닌 서자이기 때문이다. 그의 몸속에는 이미 불순한 피가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태생적 한계가 그의 근본적 정체성을 지배한다. 그의 악행은 이러한 본질적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또한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내인들의 입장에서 ‘인조반정’은 광해군의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판단,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그들은 내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기에 본래적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들이라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극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해하고 의미화해야 했을 것이기에 계축일기의 후반부는 그 의미화 방식의 일면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계축일기>에 나타난 선악에 대한 세가지 관점, 즉 사회적으로 주어진 경계를 지키는가, 어떠한 본성을 타고났는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따른 각각의 선악관이 곧 임금을 폐위한 사건을 이해하는 다양한 입장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였다. 요컨대 각각의 선악관은 하

나의 사건을 이해하고 의미화하는 다양한 방식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각의 선악관은 당대의 상황이 의미화되는 상이한 방식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축일기>는 이처럼 ‘인조반정’을 이해하고 의미화하는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별첨> — <계축일기>의 내용 요약

**1권**

1. 유자신이 중전을 놀라게 하여 낙태시키려고, 궁궐 밖에 화적 떼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퍼뜨렸다.(1602)
2. 인목왕후가 공주를 낳고, 유자신이 축하예물을 올렸다.(1603)
3. 중전이 대군을 낳았다.(1606)
4. 유자신이 동궁을 모시는 무리들과 정인홍에게 동궁의 안위를 위하여 곳도 하고 점도 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5.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음해하는 소문을 퍼트리기 위해 동요까지 지어 유행시켰다.
6. 대국의 천자에게 세자책봉을 주청드리자고 선조를 재촉했다.
7. 갑진년에 대국의 천자가 둘째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일은 예법에 어긋난다 하여 동궁의 세자책봉을 허락하지 않았다.(1604)
8. 정인홍 등이 임해군을 위한다며 유영경을 죽이라는 상소를 올리자 선조가 귀양보내라는 교지를 내린다.(1607)
9. 선조가 죽다.(1608)
10. 인목대비가 광해군이 보위에 오르는데 도움을 준다.
11. 선조가 죽기 전에도 인목대비가 부자 관계를 돈독하게 중재해주었다.(1607)
12. 이때에는 광해군도 중전의 은혜를 고맙게 여겼다.
13. 선조는 광해군을 어렸을 때부터 부족하게 여겼다.

14. 갑자기 임진왜란이 일어나 동궁을 왕세자로 책봉했다.(1592)
15. 선조가 광해군을 꾸중하면 그때마다 원수처럼 생각했다.
16. 광해군이 후궁의 조카를 첩으로 삼으려하자 선조가 꾸짖었다.(1600)
17. 결국 광해군이 후궁의 조카를 빼내자 선조가 더욱 못마땅하게 여겼다.  
(1606)
18. 대군이 탄생하자마자 유자신과 동궁의 무리들은 대군을 없애기 위해 날  
마다 모의했다.
19. 선조가 죽고나자 광해군이 정인홍 일당에 벼슬을 주었다.(1608)
20. 정인홍 일당이 임해군을 숙여, 대궐 밖에 한걸음 내딛자마자 비변사로  
결박해 갔다.
21. 임해군이 강화도 교동에 감금되었다.
22. 임해군에 대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명나라의 관리가 파견되었다가 돌  
아갔다.
23. 임해군이 독살되었다.
24. 정인홍 일당이 영창대군을 처치하기위해 상소를 올렸으나 신하들이 반  
대하여 당분간 그냥 두었다.
25. 광해군이 인목대비에 대한 문안을 점점 불손하게 하였다.
26. 선조가 죽은지 삼칠일이 지나 대비전에 문안을 갔을 때, 예법에 어긋나  
게 광해군은 곡을 하지 않았으며, 대비에게도 못하게 하였다.
27. 선조의 묘호를 정하는데 대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종'자를 붙여 불효했다.
28. 대비의 능행을 반대했다.
29. 대비가 혼전에 나가는 것을 광해군은 반대하고 중전이 허락했다.
30. 광해군이 대비전에 와서 정명공주는 사랑하면서 영창대군은 미워했다.
31. 광해군은 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영창대군을 경계하는 말을 하여 세자로  
하여금 영창대군을 싫어하게 만들었다.
32. 광해군은 하루도 채식만은 못할 정도로 육식을 즐겼다.
33. 광해군은 민망할 정도로 선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34. 광해군이 대비의 울음소리를 듣고 비웃었다.

35. 광해군이 능력이 없어 중전의 도움으로 정사를 처리하다.
36. 내관이 이에 대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자 계축년에 죽었다.
37. 왕은 정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38. 대궐의 담 밖에 움막을 짓고 하인 하나를 상주하도록 하여 밤이면 그를 통해 유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토록 하였다.
39. 대궐의 한 시녀는 공사에 대한 답을 들으러 하루에도 몇 번씩 유자신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이를 불평하자 쫓아냈다.
40. 왕의 성품이 좀 잔인한 데가 있었는데, 부쩍 기둥으로 사람을 때리고 채찍을 휘두르고, 달군 석쇠로 내리치는 등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 많았다.
41. 광해군이 관청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
42.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공경하는 척했다.(1608)
43. 광해군의 미움함은 소와 같아 뒷간에 오래 있거나 자주 들락거렸다.
44. 광해군이 점점 대비를 박대하는 것이 극에 달했다.(1610. 1611)
45. 왕은 상궁 가히를 가까이 두고 중전을 멀리하면서도, 공사를 처리할 때는 도움을 청했다.
46. 왕은 영창대군이 보위를 노린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날고기를 먹었다. 이처럼 날것을 즐기자 왕의 눈은 충혈된 것처럼 별절게 되었다.
47. 왕은 야채를 더럽게 여기고 육식만 일삼았다.
48. 왕은 점점 흥폭스러워졌고, 실없는 말까지 했다.
49. 1608년 초까지는 대비전 내인들에게 후덕하게 대했으나 1611년부터는 본 체 만 체 했다.
50. 광해군이 배롱하면서 곡하지 않았다.
51. 중전도 대비를 모시는 일을 소홀히 하고 분란만 만들고 있었다.
52. 왕비는 사실 글재주도 있고 재치 또한 겸비하여 마음 씩씩이가 고운 면도 있었다. 그러나 간사한 내인들과 어리석은 왕이 흉악한 데다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지어내어 이간질했다.
53. 신해년(1611)에 대궐을 옮겼다.

54. 김직재의 난이 일어난 이후로 짐을 치고 남을 저주하는 일들을 하여 궁궐의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했다.(1612)
55. 대궐 밖의 이름난 점쟁이를 모두 유자신의 집에 불러들여 대군에게 화를 입힐 방책을 물었다.
56. 유자신의 아내 정씨가 대궐 안에 들어와 자신의 딸과 사위를 불러 무엇인가 의논했다.
57. 계축년(1613, 광해군5) 정월 초사흘날부터 저주를 시작하여, 털이 하얀 강아지의 배를 갈라 대궐로 들여오기도 하고, 화상을 그려 활로 쏘는 시늉을 해 놓고는 그것을 인적이 드문 곳과 왕이 주무시는 곳에 몰래 놓아 두었다.
58. 계축년에 역모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옥사가 벌어졌다.(1613)
59. 유자신이 그간의 모든 방정사건을 대비전에 덮어씌우고 이 일을 빌미로 대비전의 침실상궁 김씨와 영창대군의 보모상궁과 유모 환이, 그리고 침실 시녀 여옥이를 문초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60. 옥중에서는 김상궁을 비롯한 많은 내인들에게 사약을 내렸다.
62. 나중에는 대궐 밖에까지 나가 유모를 찾아 끌고 갔다. 이렇게 잡아들인 내인들이 근 30여 명은 되었으나 결국 한 사람도 자백하지 않고 죽었다.
63. 대비의 아버지가 살인 도적의 일로 죄를 뒤집어쓰고 잡혀 들어갔다.
64. 대비가 왕에게 부친과 동생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65. 응벽의 무복사건이 있었다.
66. 대비 측근의 제거를 시도했다.
67. 영창대군이 궐밖으로 끌려나갔다.
68. 대군을 강화로 옮겨 갔다.
69. 내인을 시켜 대궐 밖을 살피게 하였다.
70. 처소 안팎을 에워싸고 문이란 문은 다 밀어 닫고 사잇문까지 탕탕 막아 버렸다.
71. 대비전의 바깥 행랑에는 큰 대문이 있는데, 본래 드나드는 문이 아니어

서 늘 담아 놓았다. 내인들은 그리로 소식을 전하려 하였으나 군사들이 지키고 섰는지라, 관아의 하인 따위가 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전할 길이 없어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72. 대비마마는 웃어른의 처소에 계시지 못하고 후궁이나 정빈이나 마찬가지로 뒤섞여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73. 경춘, 중환이 입궁하여 대비가 믿고 일을 맡겼다.(1610)
74. 중환의 오라비를 가히가 구해주겠다고 유혹하여 중환을 심복으로 삼았다.
75. 중환 등이 대비전 물건을 훔쳐다가 가히에게 주고 대비전의 일을 소상히 알려주었다.(1612)
76. 당시 대비전과 대전이 거쳐하는 두 대궐에는 사잇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잠가 두고 아침에 내관이 문을 열어야 조석 문안을 드리는 상궁이 다닐 수 있었다.
77. 가히는 이곳을 드나들며 기회를 틈타서 영창대군을 죽이려고도 하고, 방정을 걸기도 했다.
78. 계축년 동짓달 중환이가 인목대비에게 경을 읽도록 권유했으나 거절했다.
79. 중환이 가히에게 인목대비가 대전을 죽으라고 하늘에 제사지내고 계신다는 거짓을 고했다.

## 2권

80. 중환이 문상궁을 속여 일을 꾸몄다.
81. 이로인해서 대비전의 내인들이 하옥되고, 갑인년 초에 추국을 당했다.  
(1614)
82. 여옥이가 거짓 자백을 했다.
83. 상궁 난이는 광해군의 부덕함을 욕하고, 대비전에게도 해를 끼쳤다.
84. 영창대군이 내인의 꿈에 나타나 좋은 곳에 와서 놀고 있다고 하였다.
85. 갑인년(1614) 왕이 내관을 보내 변상궁에게 대군의 죽음을 알렸다.
86. 대비가 대군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87. 병이 든 변상궁이 온몸을 뒤지는 모욕을 당한 뒤 나갔다.

88. 천복이가 다시 들어왔다.(1614)
89. 천복이가 말하길 상감마마께서 공성왕후의 지위를 강남에가서 봉하여왔다고 하였다.
90. 천복이가 대전의 꾸중을 듣고 똥오줌을 지렸다.
91. 천복이가 서궁에 불을 질렀다.
92. 가히 등 대전 내인들이 인목대비를 없애기 위해 서궁의 시녀들을 찢어 서궁에 불을 지르는 등 대비를 놀라게 했다. 하인들 중의 여러 아이들과 가히가 내통하였다.
93. 마마에는 칼질과 도마질이 가장 흉한 것이라 믿고 고기를 토막쳐 들었다.
94. 변상궁이 들어왔다.(1615)
95. 갑인년 4월 내관 박충신이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의 처소에서 세간을 내갔다.(1614)
96. 서궁의 담을 더 높이 쌓고 궁중을 좁게 했으며 문에는 첩을 박았다.
97. 대전에서 더러운 물건을 한 곳에 모아두라고 하여 일년 동안 모아 놓은 것이 산과 같았다.
98. 두어 해가 지나자 악취가 궁중에 가득하고, 구더기가 방안과 밥 지어먹는 술 위에까지 끼어, 물로 씻어내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99. 집 위에 까마귀와 까치의 똥이 가득하여 마치 회를 바른 듯했다.
100. 그렇게 십년이 지나자 모든 물건이 다 없었다. 신바닥을 기울 노끈이 없어 벼옷을 풀어 꼬아 길고, 지을 실이 없어 모시옷과 무명옷을 풀어 썼다.
101. 짐승의 똥에 마침 쪽 씨가 들어있었던지 풀 한 포기 생겨났다.
102. 쌀을 일 바가지가 없었는데, 하루는 까마귀가 박씨를 물어 와서, 한 해 길러 두 해가 되자 쪽박이 열리더니, 세 해째는 중박이 되고, 네 해째는 큰 박이 되었다.
103. 숨도 없이 칠팔 년동안 겨울을 지냈는데, 우연히 면화씨가 섞여 들어왔다.
104. 가지와 외와 동화 씨가 짐승의 똥에 들어 있었다. 그것을 심어 나물 상을 차려먹을 수가 있었다.

105. 어느 날은 평의 목에 수수씨가 들어 있었다.
106. 상추씨가 짐승의 똥에 있어서 심었다.
107. 여러 해가 지나자 안 담이 무너지니, 하도 민망하여 뜰에다 달구질을 하여 고쳤다.
108. 그러던 어느날 바깥담까지 무너졌다.
109. 하루는 씨 뿌린 적 없는 나물이 침실 뜰에 가지가지 났다. 꿈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물을 못 얻어먹기에 이 나물을 주노라” 하였다.
110. 문이 닫혀있는 동안 햇과일이 없었는데, 대비마마께서 친정아버지를 위해 제사를 지내시자, 무오년(1618)부터 이 대추나무가 무성해지더니 큰 밤만한 열매가 열렸다.
111. 복숭아나무 또한 저절로 길가에서 자라났다.
112. 신유년(1621) 임술년(1622)부터는 신인이 내려와 내인들의 눈에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113. 내인이 병들었으니 내보내달라고 백번 빌어야 내보내 주었다.
114. 가히, 은덕이, 갑이를 아는 사람들은 밖에 사는 제 부모에게 청만 넣으면 앓지 않는 사람조차 데려갔다.
115. 3월13일 삼경에 문이 열렸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계축일기』, 조재현 옮김, 서해문집, 2003.  
『계축일기』, 강한영 교주, 신고전사, 단기 4292(1959).

### 2. 논저

- 김용숙, 『조선조여류문학의 연구』, 숙명여대출판부, 1979.  
\_\_\_\_\_, 『이조여류문학 및 궁중풍속의 연구』, 숙대출판부, 1970.  
김인순 외, 「궁중문학에 나타난 여성의식」, <돈암어문학> 제2호, 1989, pp.162~

175.

- 김일근, 「癸丑日記 新攷」, <국어국문학> 55~57합, 1972, pp.143~152.
- 김정석, 「『癸丑日記』人物性格 攷(攷)」, <우리어문연구>, 1999, pp.243~270.
- 민영대, 『계축일기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0.
- \_\_\_\_\_, 「계축일기」, 『고전소설연구(황패강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일지사, 1993.
- 박대복, 「조선조 서사문학에 수용된 저주와 천관념( I )」, <어문연구> 108권, 2000, pp.56~75.
- 소재영, 「궁정문학의 비극성」, <민족문화연구> 3, 1969, pp.181~217.
- 이능화, 『조선무속고』, 이재근 역, 동문선, 1991.
- 이병원, 「계축일기의 문체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96, 1986, pp.255~282.
- 이영호, 「서술자의 측면에서 본 <계축일기>의 표현전략연구」,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교육> 11집, 2006, pp.10~69.
-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자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3, 1986, pp.228~249.
- 이순규, 「계축일기에 나타난 궁중생활상」, <사학연구> 55, 56合集號, 1998, pp.443~458.
-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 정병설, 「계축일기의 작가문제와 역사소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15, 1999, pp.149~171.
- 정은임, 「朝鮮朝 宮中文學의 장르 再照明」, <동양학>, 제32집, 2002, pp.35~53.
- \_\_\_\_\_, 「조선조 궁중문학의 특질」, <문명연지> 제4권 제3호, 2003, pp.161~203.
- 최중성, 「조선시대 유교와 무속의 관계 연구」, <샤머니즘 연구> 제4집, 2002, pp.225~254.

ABSTRACT

A study on Gyechookilgy

Kim, Jung-Kyong

*Gyechookilgi* is written on replacing the ruler. From now on, a lot of articles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true and false. Bu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gnize the way of standing for the world.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matter closely, the paper has been proceeded with a method of description within *Gyechookilgi*.

Injobanjung involved with people of many classes, therefore there was various positions in *Gyechookilgi*. And the position was discovered through three types of viewpoints about virtue and vice. As a result, the paper found out that the recognition of the virtue and vice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Key Words** confucianism, shamanism, identity, space idea, renovation, innate goodness, innate badness

논문투고일 : 2007. 9. 30.

심사완료일 : 2007. 10. 31.

게재확정일 : 2007. 12. 5.